

제5장. 받침의 끊어내기현상과 관련한 발음

끊어내기는 받침자모를 발음을 끝낼 때의 받침소리로 바꾸고 뒤의 모음에 이어서 발음한다. 받침자모와 받침소리의 대응관계는 제9항과 같다.

제10항. 모음 《아, 어, 오, 우, 애, 외》로 시작한 고유어말뿌리앞에 있는 받침은 끊어서 발음한다.

- 례: - 부엌안[부억안→부어간], 녀었다
[넉업따→너겍따]
- 옷안[올안→오단], 첫애기[첸애기→처대기], 젓어머니[절어머니→저더머니], 닳올림[달올림→다돌림]
- 무릎우[무릅우→무르부]

[붙임]

《있다》앞에 오는 받침들도 끊어서 발음한다.

- 례: 값있는[갑일는→가빈는]

그러나 《맛있다》, 《멋있다》는 이어내여 발음함을 허용한다.

례: 맛있다[마싯따/마딤따], 멋있게[머
싯께/머딤께]

제11항. 단어들이 결합관계로 되어있는 경
우에도 앞단어가 받침으로 끝나고 뒤단어가 모
음으로 시작될 때에는 끊어서 발음한다.

례: 팔 아홉키로[판 아홉키로], 짚 열단
[집 열딤], 옷 열한벌[온 여란벌], 첫
의정[첸 의정/처 디정]